

미국 컨테이너 해운 현황 및 2023년 글로벌 동향 전망

- ◆ '22.12월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량,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
- ◆ 중국, 한국, 인도 등으로부터 컨테이너 수입 물량 감소세 확연
- ◆ 서부 LA 롱비치항 등의 미국 컨테이너 처리 지연 호전 중
- ◆ 컨테이너 해운 비용(중국 ⇒ 미국 서부 LA) 급격히 하락
- ◆ 올해 해운물류 안정화 전망 속 리세션, 지정학, 노사분쟁 등 리스크 상존

1. 美 컨테이너 해운 현황 ('22.12월 현재)

□ '22.12월 기준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감소

- 올해 12월 미국의 컨테이너 수입 물량은 전월인 11월 대비 1.3% 감소한 1,929,032TEU 기록. 전년 '21.12월 물량에 비해 19.3% 하락
- 팬데믹 이전 '19.12월 당시 수입 물량 1,904,828TEU 수준으로 회귀

<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량 변화 (2019~2022) >



[자료] Descartes Systems Group

□ 한국과 인도로부터 컨테이너 수입 물량 급감 ('22.10월~12월)

- '22.12월 대중 수입 물량은 연중 최고를 기록했던 8월 대비 31.9% 하락
- *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에서 중국 비중이 '22.2월 41.5%에서 12월 35.4%로 감소

- 10월~12월 사이 한국과 인도로부터 컨테이너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, 일본과 태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은 증가

<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량, 상위 10개국 증감 비교('22.10월~12월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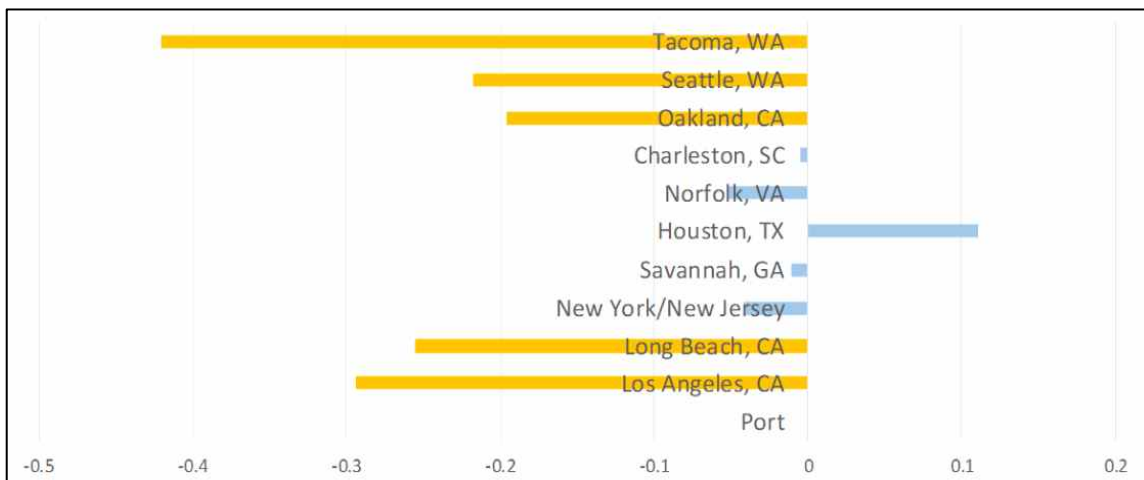
수입국	TEU 증감	% 증감
중국	-3,173	-0.5%
베트남	3,952	2.6%
인도	-9,094	-10.6%
한국	-13,959	-15.1%
태국	5,178	9.1%
대만	-2,921	-4.9%
홍콩	-4,484	-9.5%
일본	5,711	10.6%
독일	109	0.2%
이탈리아	640	1.2%

[자료] Descartes Systems Group

□ 美 10대 항구의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⇒ 중소 항구로 물류 분산 이동

- 5개월 단위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비교했을 때, 미국 10대 항구 대부분(휴스턴 항 제외)에서 물동량 감소세 뚜렷

< 미국 10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증감 ('22.5.21~9.21 대비 8.22~12.22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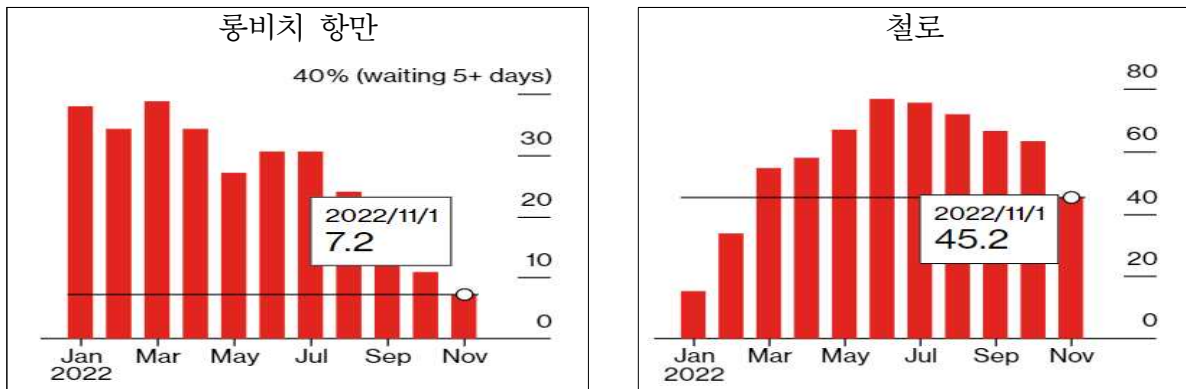
[자료] Descartes Systems Group

2. 미국 컨테이너 물류 정체 완화 추세

□ 서부 LA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처리 지연 상황 호전

- 컨테이너 적체율(5일 이상)이 지난 3월 38.7%에서 11월 7.2%로 하락
- 항만 인근 철도 수송 대기 중인 컨테이너 적체 비율도 개선*
 - * '22.6월 76.7% ⇒ 11월 45.2%

< 서부 LA 롱비치항 컨테이너 적체 비율 변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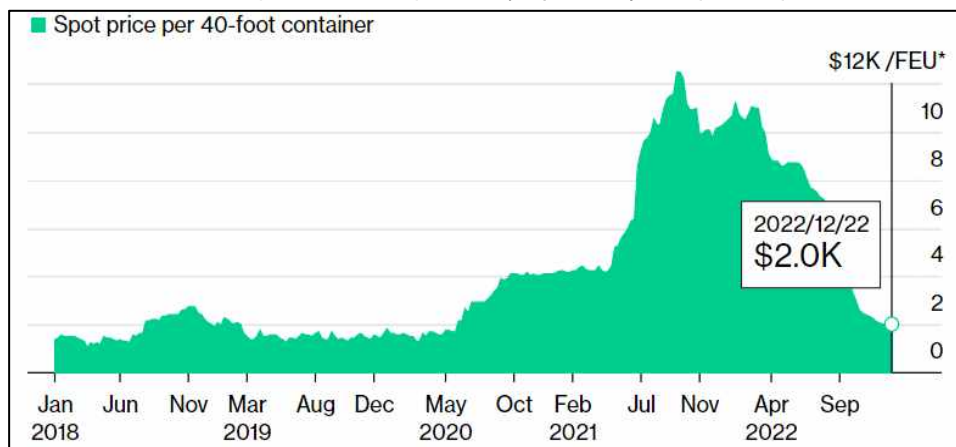


[자료] Pacific Merchant Shipping Association / 블룸버그통신

□ 컨테이너 해운 비용(중국 ⇒ 미국 서부 LA) 급격하게 하락

- '21년 한때 최대 10배(12,400달러)까지 급등했던 컨테이너(40피트 기준) 운송 비용이 '22.12월 기준 2,000달러로 하락해 운임 안정세 회복

< 중국에서 미국 LA까지 컨테이너 물류 >



[자료] Drewry World Container Index / 블룸버그통신

3. 2023년 글로벌 해운 동향 전망

컨테이너 해운물류 전문기업 Xchange는 자체 시장조사 및 고객·전문가 설문을 근거로 2023년 글로벌 해운 동향 보고서(23 Shipping Trends in 2023) 발간

□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이 업계 최대 위기 요인으로 작용

○ 해운업계 전반에 올해 국제 인플레이션 지속, 리세션 돌입 우려 팽배

- * 설문 응답자, 최대 사업 리스크로 △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(88.5%) △러-우 전쟁(57.7%) △중국 코로나 봉쇄(53.8%) △노사분쟁(23.1%) 등 지목

□ 미국 내 물류 파업 잠정 무마에도 불구하고, 재발 위험성 상존

○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 고조 ⇒ 추가 노사분쟁 발발 예상

- * 올해도 항구 등 파업으로 물류 지체 현상을 예상하는 응답 35%에 육박

□ 컨테이너 창고 보관 등 제반 비용 상승

○ 컨테이너 창고 처리에 지체가 예상됨에 따라, 창고 보관료 및 처리 지연으로 인한 벌금 등 비용이 고조될 전망

- * 올해 동안 컨테이너 창고 처리 지체 현상 지속 전망 40.4%

□ 당분간 컨테이너 운송비용 약세 지속 전망

○ 컨테이너 운송비용은 내림세 예상. 2분기 이후 부분 회복 가능성

- * '23년 컨테이너 운송비용 하락 전망 86.6%, 하반기 반등 전망 40.4%

- 국제 운송 수요 감소로 그 외 트럭 및 항공 화물 운임도 하락 예상

□ 디지털 인프라 미비로 해운물류 효율성 저하 우려

○ 디지털 혁신 지체로 해운물류 처리(예약, 가격책정, 일정 등) 문제 발생

□ 핵심 광물 공급을 두고 시장 불균형에 따른 국제 갈등 발생

-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주요국 간 핵심 광물 수급 경쟁 과열 ⇒ 아프리카, 남미 등 주요 광물 생산지를 중심으로 지정학 역동성 발생

□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 고조

- 전염병 · 전쟁 · 지정학 갈등 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비해 주요 기업사에서 니어쇼어링, 리쇼어링 등 새로운 소싱전략 채택
 - 기존 공급망을 재조정, 공급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유연성과 회복성 제고
 - 미국을 중심으로 프렌드쇼어링(Friendshoring) 동향 강화

□ 중국과 무역을 대체할 수 있는 옵션 강구 (Trade with China + 1)

-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국의 역할 비중이 감소하면서,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 · 베트남 등을 생산 · 물류 대체지역으로 고려 중
 - * 베트남, 인도가 글로벌 컨테이너 운송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는 응답 67.3%

4. 시사점

□ 서부 항만 노사협상이 올해로 연장됨에 따라 연내 물류대란 불씨 존재

- 서부 항만 노조(ILWU)와 해만 운용사 단체(PMA) 간의 근로계약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 연내 파업 발발 가능성 상존
 - * 롱비치항과 LA항 등 미국 서부 항구는 우리 전체 대미 물동량의 3분의 1가량 소화

□ 컨테이너 운임 가격 변동 폭 확대 전망에 우리 수출기업 대비 필요

- 에너지 가격 변동, 국제 경기 불확실성, 지정학 리스크로 운임 비용 등락 예상

□ 글로벌공급망 환경 변화에 맞는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 시급

- 내 · 외생 변수에 따른 공급망 변동에 대비하고 탄력적인 대응 방안 모색 요구

* 자료 : 블룸버그통신(1.11), 월스트리트저널(1.10), Descates, Xchange 등